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11)(1/3/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13 장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순종함, 2-3 절

눅 2:7 -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 13:14 -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 51:23 -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엮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물을 창조한 전능자이자 지존자인 나도 너를 위하여 내 자신을 쳐서 사람에게 겸손히 복종하였는데, 티끌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네 자신을 쳐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는가? 내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가 된 것은(눅 2:7; 요 13:14), 너로 하여금 나의 겸손을 본받음으로써 네 자신의 교만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티끌에 불과한 자여,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흠이자 진흙에 불과한 자여, 네 자신을 낮추고서 모든 사람의 발 아래 엮드리는 법을 배워라(사 51:23). 모든 일에서 너의 뜻을 꺾고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3. 맹렬한 분노로 네 자신을 대적하여, 교만이 네 속에 살아남아 있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거리의 흙을 밟고 지나가듯이 너를 밟고 지나가도 관찮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로서 기꺼이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 주어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아, 네가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추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여, 너는 하나님께 무수히 죄를 범해 왔기 때문에 이미 수천 번도 더 지옥에 떨어졌어야 할 자인데, 사람들이 너를 비난한다고 해서, 네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너를 생명으로 인도한 것은, 너로 하여금 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은택들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가운데, 네 자신을 항상 참된 순종과 겸손에 내어주고,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멸시를 인내로써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과 해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낮아지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세속의 왕의 모습, 권세가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 그리고 철저한 복종의 모습으로 구원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방식 뿐만 아니라, 겸손한 순종의 모습도 아울러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 예수님이야말로 순종의 최고의 모범이 되신다. 주님을 온전히 본받아야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특히 순종의 미덕을 본받아야 한다.

순종은 자신을 존재를 쳐서 스스로 낮아질 때 나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을 때 친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요 13:4-5 -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구체적인 행동들은 그분의 겸손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자신을 스스로 쳐서 낮아지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 진정으로 겸손한 말과 행동이

나오고 온전한 순종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 자존심, 기질, 성향, 습관 등을 쳐서 나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 일 동안이나 금식기도하신 것, 바울이 회심한 후에 광야에 들어가 3 년간이나 수련을 한 것은 왜곡되기 쉬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렇다.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며,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순종을 방해하는 기질, 성격, 교만, 완악함, 생각들까지 쳐내고 깎아내는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뺏뺏하며, 여전히 거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알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신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것도 내세울 것 없는, 너무나 연약하며,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사울 왕이 불순종한 이유 중의 하나는, 왕이 된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생겨난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시 146 편의 저자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고백했다. 시 146:1-5 -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약하며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를 낮출 수 밖에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도 순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직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때때로 고집을 꺾기가 힘든가? 낮아짐과 겸손의 실천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순응적이며 부드럽고 용납의 마음을 품기가 어려우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스스로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자. 주님의 길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2. 주께서 세워 주신 우리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올 한 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참된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3. 교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